

## + 함께 볼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4, 16)

## + 한국교회의 신뢰도 살펴보기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 ① 기독교인과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51점
- ② 한국교회가 사회문제해결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62.1%

## + 미국교회를 떠나는 젊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여섯 가지 대안

- 데이비드 키네먼,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국제제자훈련원, 2015) 참조.

- ①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참여**하여 창조적으로 자신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도전을 주기
- ② 상투적인 성경공부와 양육, 설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제자**를 양육하기
- ③ 반과학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과학적 재능과 지적 능력을 가진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실히 응답하고 **과학**과 소통적 관계 맺기
- ④ 성(性)에 대한 보수적, 규율적 태도가 아니라 **관계적** 성윤리 확립하기
- ⑤ 타인을 향한 **공감**으로 기독교의 유일성과 정체성 보여주기
- ⑥ 의심의 문제에 부딪힐 때, 질문을 가로막지 말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때로 기다려주고 **함께**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 한국교회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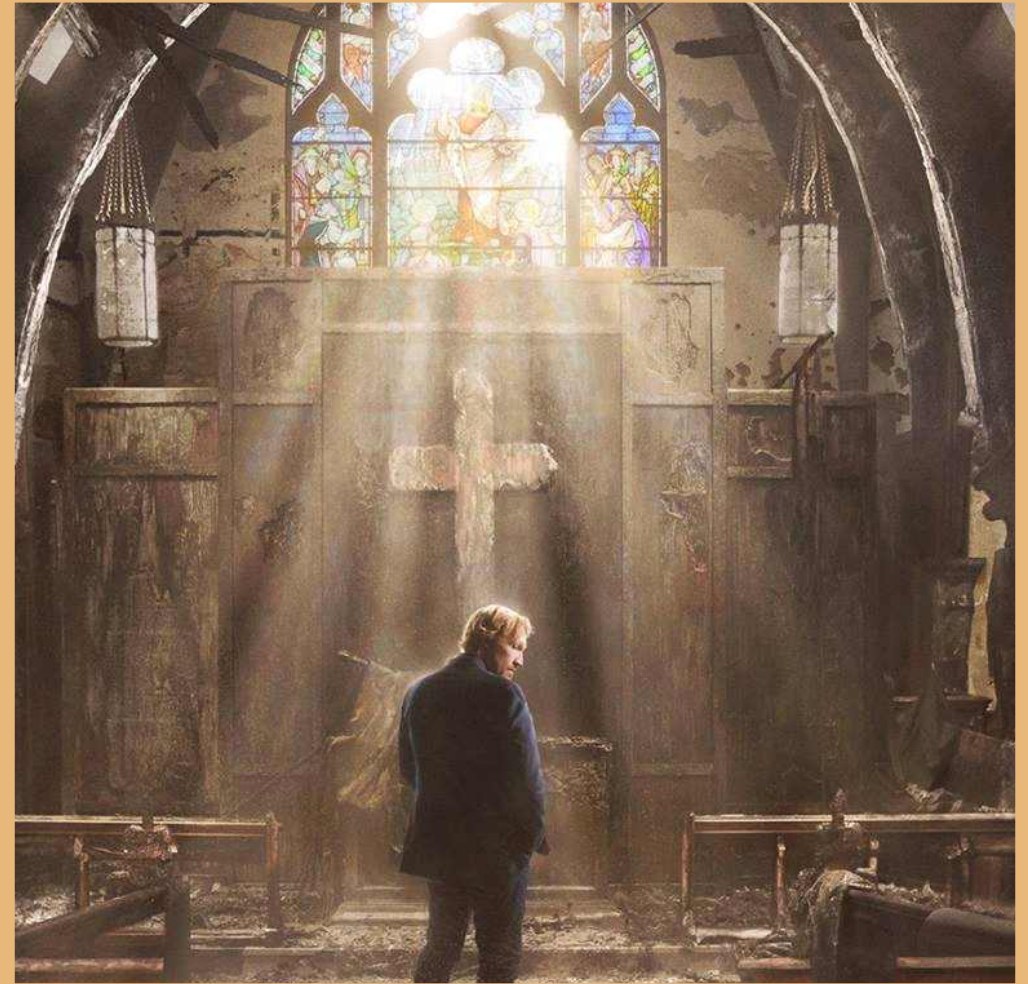
발행 문화선교연구원

집필 및 디자인 문화선교연구원

다운로드 [www.cricum.org/1352](http://www.cricum.org/1352)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 하늬솔빌딩A) B1 필름포럼

문의 02-743-2535, [www.cricum.org](http://www.cricum.org)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 무비톡가이드 vol.34

# "작은 빛들이 모여"

- 신앙이 흔들릴 때 -

-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 -

문화선교연구원+필름포럼+서울국제사랑영화제

### + 어떤 영화예요?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는 오늘날 미국에서 기독교와 관련되어 벌어질만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역대 미국 기독교영화 흥행 TOP 10에 들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무신론 교수와 신입생 간에 벌어진 하나님의 존재 증명 논쟁을 다룬 <신은 죽지 않았다>(2015년 국내 개봉), 고등학교 내 종교적 발언의 자유에 대해 다룬 <신은 죽지 않았다2>(2016년 국내 개봉)에 이어 <신은 죽지 않았다3>는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립대 내에 위치한 교회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을 소재로 하되,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혹은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신앙인들의 사연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사랑과 용서, 평화와 화해,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가 존재할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전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기독교인들, 특히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줍니다.

### + 영화 이해를 위한 TIP!

미국 사회 전반에 청교도 정신이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다양한 종교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치관이 충돌하거나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언어와 행동들이 공적 영역에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자유'만큼 종교적 표현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무신론자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바나(Barna)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20년 만에 24%(1993)에서 45%(2015)로 늘었으며, 기독교 배경을 가진 18~29세 청년들 중에 신앙에 심각하게 회의를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50%(2011)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는 이러한 미국교회의 배경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한국교회와 한국의 기독교인들 역시 영화 속 인물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함께 고민해 본다면 어떨까요.

### + 영화 보고 나누기

1.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나 인상 깊은 장면, 인물, 대사를 골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2. 영화 속 인물들처럼 신앙이 흔들렸던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고 지금은 어떤지 나눠주세요.

---

---

---

3.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

4.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한 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

---

---